The Japan Exchange and Teaching Programme

JET Programme 경험담

다섯 번째

한정규	고치현	1~4
박새미나	오이타현 분고오노시	5~8
이현주	나가사키현 쓰시마시	9~11
이유미	에히메현	12~14

※ 여기에 실린 글과 이미지는 무단으로 전재, 편집, 재배포 등을 절대 금지합니다.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JETAA KOREA

KJET 24 기 국제교류원
한정규 (고치현, 2016 년 ~ 2021 년)

1. 정답 없는 질문과 소신 있는 대답

한국사를 전공하면서 한일교류사를 깊이 있게 배웠습니다. 역사는 제가 좋아하는 분야였지만,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한일 간의 교류 역사를 배우면서 일본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경험을 많은 사람과 나눈다면 한국과 일본이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에서 한국 교류사업을 담당하며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JET 프로그램에 지원하였습니다. 첫 번째 응시 때는 턱없이 부족한 일본어 실력 때문에 면접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대단히 아쉬웠지만 저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결과였고, 오히려 제 약점을 확실히 파악한 덕분에 다행히 두 번째 응시 때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합격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은 JET 프로그램에 대한 확고한 의지였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면접 당시, 면접관께서 1 년 전 면접 때와 같은 질문에 제 답변이 바뀐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허를 찌르는 질문에 적잖이 당황했지만, 왜 JET 프로그램을 준비하며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그동안 저 스스로 고민하며 찾은 답을 바탕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정답이 있는 질문은 아니었지만 소신 있는 답변이 합격으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 조심스레 짐작해봅니다.

2.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고치가(高知家)

제가 생활했던 고치현은 북쪽으로 시코쿠 산지가 자리 잡고 남쪽으로는 태평양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동쪽 끝에는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무로토곶'이 있고, 서부에는 일본의 마지막 청류라고 불리는 시만토 강과 특유의 에메랄드빛으로 유명한 니요도 강이 있습니다. 쉬는 날이면 별다른 계획 없이 동서남북 아무 곳이나 발길 닿는 곳으로 떠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태평양을 마주하는 가쓰라하마 해변

일본의 마지막 청류 시만토강

아름다운 자연이 잘 보존된 만큼 신선한 식재료를 이용한 지역 음식이 일품입니다. 짚불에 구워 먹는 가쓰오(가다랑어) 다타키는 고치현을 대표하는 음식이며, 여러 요리를 한데 모아 먹는 사와치 요리도 유명합니다. 또한 유자를 비롯해 고치현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감귤류 과일을 온갖 음식에 곁들여 산뜻함을 더합니다. 한편 고치현은 일본에서 1 인당 술 소비량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일본에서는 드물게 술잔을 돌려 마시거나 놀이를 하여 벌칙으로 술을 마시는 등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술자리 문화가 발달하기도 했습니다.

짚불로 굽는 가쓰오(가다랑어) 다타키

여러 요리를 한데 모아 먹는 사와치 요리

고치현청 국제교류과에서 저의 업무는 한국 교류사업, 통·번역, 한국어 수업 및 한국문화강좌, 이벤트 등이었습니다. 고치현과 자매결연을 맺은 전라남도와 청소년, 아동복지, 임업 등의 분야에서 교류사업을 추진하였고, 고치현의 관광과 만화 문화를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도 펼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치현청과 한국 측의 의견을 조정하거나 자료 작성과 번역을 맡았고, 한국 출장을 가거나 한국에서 온 방문단을 맞이할 때는 수행통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5 년간 담당했던 여러 업무 중에서 가장 뜻깊은 것은 고치현과 전라남도의 자매결연 체결식입니다. 두 지역이 오랫동안 이어온 우호 교류가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는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에 준비 과정도 수고스럽고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었고 이후에는 어떤 업무를 맡더라도 자신감을 갖고 부딪혀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치현과 전라남도의 자매결연 체결

고치현과 부천시 만화부서 업무협약 체결

한국어 수업은 수준에 따라 간단한 인사말을 가르쳐주거나 자유롭게 한국어로 대화하였고, 한국문화강좌에서는 전통문화부터 최신 유행까지 다양한 소재와 주제를 다뤘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내며 열띤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학교 방문은 저에게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고치현청과 시청에서 근무하는 6 개국 7 명의 국제교류원이 함께 토크쇼를 진행하거나, 한국 총영사관의 협조로 영화제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주민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참여해준 덕분에 이벤트는 매번 성공적이었고 국제교류원으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가교가 되고 싶다는 꿈을 직접 실현하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방문강좌

국제교류원들과 기획하고 진행한 토크쇼

JET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지만 무엇보다도 함께 일했던 국제교류원과의 인연이 가장 값진 것이었습니다. 고치현에서는 고치와 인연을 맺은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고치가(高知家)'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습니다. 국제교류원들은 일본에서 외국인이라는 위치와 같은 일을 하는 동료라는 점 때문에, 누구보다도 서로를 잘 이해하며 큰 힘이 되어주는 존재였습니다.

업무 외에도 함께 식사하고 국내외 여행을 다니며 한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고치를 떠나는 날에는 겨우 꾹 참고 있던 울음이 국제교류원들을 보자마자 터졌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은 일본과 각자의 나라에 흩어져 있지만 하루빨리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사코이 축제에 함께 참여한 국제교류원들

모두가 한 가족인 고치가(高知家)

3. 태풍을 일으키는 작은 날갯짓

JET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목표를 이룰 수 있었고, 이 경험을 살려 다음 진로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를 좋아해 한국사를 전공하고, 우연히 한일 교류사를 배우면서 일본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한일 교류에 이바지하기 위해 JET 프로그램에 지원했던 저의 행동과 결심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전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당시엔 작은 날갯짓에 불과했지만, 오늘날의 저를 이루는 계기와 바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치현청에서 국제교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JET 프로그램에 대해 상담을 부탁하는 메일을 몇 차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모두 고민하는 지점은 달랐지만 공통으로 전했던 이야기는, 분명 JET 프로그램은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국제교류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많은 분이 막연함과 불안함을 안고 계실 테지만 부디 잘 극복하고 이겨내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태풍을 일으킬지도 모를 여러분의 날갯짓을 응원합니다.

고치현청이 내려다 보이는 고치성

할로윈 행사에 참여한 국제교류원들

※ 고치현 자연 및 음식 사진 제공: (공익재단) 고치현관광컨벤션협회

KJET 24 기 국제교류원
박새미나 (오이타현 분고오노시, 2016 년 ~ 2021 년)

1. 새로운 길을 열어준 첫 번째 외국 살이

저는 대학교에서 일본학을 전공하며 3 학년 시절에는 사가현에서 1 년 동안 교환 학생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동안은 미디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일본에 대한 정보를 습득했다면, 일본 학교에서 일본 학생들과 수업을 듣고, 동아리에 가입하고, 축제에도 참가하며 미디어라는 필터를 거치지 않은 생생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교환 유학을 가기 전까지만 해도, 해외여행조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저에게 일본에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상상 속에서만 일어나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사가현에서 겪은 1 년 동안의 경험으로 어디에서든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할까 말까 고민을 할 때에는 무조건 해보자 하는 긍정적인 마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이러한 경험을 살려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던 와중에 JET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JET 프로그램이야말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이라고 생각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2. 한여름 태양처럼 뜨거웠던 분고오노의 국제 교류

오이타현 남부에 위치한 분고오노시는 2005 년에 합병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진 시이기 때문에 비교적 인지도가 높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부임하기 전 분고오노시를 알아보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보인 울창한 산 사진과 '분고오노시는 넓습니다', '오이타의 채소밭'이라는 문구가 분고오노시에 대한 저의 첫인상이었습니다.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맞이한 첫 출근 날, 익숙하지 않은 사투리에 인터넷으로 급하게 그 의미를 찾아본 것은 지금도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에피소드입니다. 시청 직원 대부분이 이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사투리를 쓰는 분들이 많았는데, 처음에는 낯설게만 느껴지던 사투리를 이제는 저도 자연스럽게 쓰고 있으니 신기할 따름입니다.

한국 문화 강좌

홈스테이 교류 환영식

제가 소속한 마을 만들기 추진과에서는 한국어 교실, 한국 문화 강좌, 통번역, 한일 교류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5 년 동안 근무하며 가장 비중이 컸던 업무는 1 년 차 때부터 꾸준히 진행한 한국어 교실이었지만, 가장 마음이 가던 업무는 홈스테이 교류였습니다. 분고오노시 홈스테이 교류 사업은 우호 교류 도시인 기장군과 여름에는 중학생 대상, 가을에는 성인 대상으로 일 년에 두 번 개최되었는데, 저도 고등학생 때 일본 자매 학교 학생들과 짧은 교류를 통해 느낀 점이 많았기 때문에 중학생 홈스테이 교류에 특히나 마음이 쓰였다고 생각합니다.

분고오노시는 작은 지방 소도시로 외국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국제적인 경험을 하며 더욱더 넓은 시야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교류에 임했습니다. 길지 않은 여름 방학 동안 한일 양국에서 짧을 때는 일주일 간격으로 교류가 열려 체력적으로 힘들 때도 있었고, 태풍 등의 영향으로 이동이 어려워져 교류를 포기해야 하는 위기를 맞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류에 참가한 양국 학생들이 자유롭게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 와중에도 최선을 다해 자신의 나라와 문화를 소개하고,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중학생 때 교류에 참가했던 학생이 고등학생이 되어 제가 진행하는 한국어 교실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장래의 꿈까지 정해 가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과 책임감이 동시에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교류에 참가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몇 년 동안 교류를 함께 이끌어 간 양국 인솔팀 사이에도 끈끈한 유대감을 쌓게 해 준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3. 새로운 바람이 불어온 두 번째 외국 살이

도시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규모가 작은 지역에 사는 것은 처음이었는데, 불편한 점도 물론 있었지만 저에게는 긍정적으로 다가온 부분이 더욱 많았습니다. 한국도 사계절이 뚜렷하지만, 이곳에서는 도시보다 자연이 가까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를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계절마다 열리는 축제, 계절별로 피는 꽃, 제철 식재료, 조금씩 변해가는 숲의 색과 하늘의 모습…. 도시에서는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지나쳐버린 것들이 더욱 확실하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매년 4 월에는 오이타현 곳곳의 벚꽃 명소를 찾아다니고 하라지리 폭포에서 열리는 튤립 축제도 구경하고, 6 월에는 같은 과 직원들과 하루 날을 잡아 매실을 따고, 8 월에는 이누카이 강변에 불꽃 축제를 보러 가고, 11 월에는 유자쿠 공원에 단풍 축제와 1 년에 단 한 번 열리는 요카구라를 보러 간 것이 특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하라지리 폭포

튤립 페스티벌

또한 한국에서는 운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오랫동안 운전대를 잡지 않았던 반면, 이곳은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탓에 자연스럽게 운전하는 빈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교류원에게는 업무 시에 운전을 못 하게 하는 지역도 많은데, 저는 운이 좋게도 공용차를 운전할 수 있어서 일본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일본 도로 상황에 적응하기까지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운전을 즐기게 되니 일본 생활의 폭이 한층 넓어지고, 타 지역에 가서도 훨씬 더 자유로운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도 제 교류원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입니다.

국제 교류원 근무를 시작하며 세운 목표 중 하나가 '동기가 있는 지역에는 모두 가보자'였습니다. 제 동기들은 규슈의 구마모토에서 혼슈의 아키타까지 넓게 퍼져 있었는데, 각 지역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는 동기와 함께하니 가이드북만으로는 알 수 없는 숨은 진주를 찾는 더욱 알찬 여행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동기 투어뿐만 아니라 혼자 여행을 다닐 때에도 선후배가 근무하는 지역이라면 되도록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이렇다 할 교류가 없던 분들도 국제 교류원이라는 공통점 하나로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심지어는 방 한 칸을 내주기도 하셨습니다. 많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어딘가로 떠날 정도로 여행을 자주 다니니 이제는 일본에서 안 가본 지역보다 가본 지역이 더 많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여행은커녕 외출조차 조심해야 하는 때이다 보니 이때 여행을 많이 다녀두기를 참 잘했다고 느끼곤 합니다.

시청 앞 벚꽃길

유자쿠 공원 요카구라 미즈카가미

4. 낯선 분고오노 생활의 빛이 되어준 소중한 인연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외국 소도시, 그것도 공공기관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좀처럼 할 수 없는 경험일 것입니다. 제가 근무한 시청에서 저는 유일한 외국인이었고, 길에서 드물게 한국인 관광객이 보이면 '왜 여기에 한국인이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외국인을 보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전에는 조금 더 규모가 큰 지역 혹은 도시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도 없지는 않았지만, 규모가 작은 시골이라는 특징 덕분에 주민들과 더욱 가까이에서 교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교류원으로 근무하기 전에는 한국과 일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만이 국제 교류라고 생각했다면, 일본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실, 한국 문화 강좌, 이벤트 또한 한국을 알리는 국제 교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생긴 새로운 인연들 또한 아주 감사한 존재입니다. 직접 키운 채소와 과일을 챙겨 주시던 분, 젊은 사람 입에 맞을지 모르겠다며 쑥스러운 표정으로 반찬을 가져다주시던 분, 동년배 직원이 없어서 외로웠다며 먼저 말을 걸어준 친구, 한일 교류를 통해 꿈을 찾은 학생, 아플 때면 문 앞에 먹을 것을 놓고 가주고 해외여행까지 함께 갈 정도로 친밀한 사이가 된 동료 등 소중한 인연들이 생긴 것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냥 혼자라고만 생각했던 타지 생활도 이러한 분들이 있어 5 년이나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5. JET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처음 부임했을 당시, 상사에게 '전임자가 닦아 둔 길은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다 해봐라. 적극적으로 서포트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책임감과 동시에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전체적인 틀은 유지하면서도 그 안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어떻게 하면 이전과는 조금이라도 다른 교류를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곤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한국 문화 강좌를 더욱더 많은 나라를 소개하는 국제 문화 강좌로 확장시키고, 갖은 인맥을 동원하여 시 소개 영상을 촬영하고, 코로나 때문에 계획했던 이벤트들이 모두 무기한 연기되었을 때에는 지면을 통해 할 수 있는 새로운 이벤트를 기획했습니다. 그동안 제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쌓여가고 있었던 한계들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뛰어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교류원은 지역마다 업무도 생활환경도 매우 다르기 때문에 정보를 얻기도 어렵고, 준비를 하는 과정 또한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을 하며, 그 경험을 발판 삼아한 단계 성장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시 홍보 영상 촬영

마지막 근무 날 받은 헵타곤(**ヘプタゴン**) & 나밧삐(**なばっピー**)

KJET 25 기 국제교류원
이현주 (나가사키현 쓰시마시, 2017 년 ~ 2021 년)

1. 케세라세라, 원하는 대로!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일본어와 일본문화에 관심이 많고, 유난히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활발한 아이였습니다. 고등학교 1 학년 때, 친한 물리선생님의 온갖 회유에도 불구하고, 소신 있게 내가 좋아하는 일본어를 공부하겠노라며 문과를 선택하였고, 대학도 외곬으로 일어일문학과에 진학했습니다. 대학 진학 후, 도일 연수와 홈스테이, 교환학생 경험 등을 통해 만난 인연과 일본에서 보낸 시간들은 좋은 기억들로 제 마음 한편에 자리하였습니다. 소중한 단편의 기억들이 차곡차곡 모여 언젠가 일본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싹텄고, 학과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JET 프로그램 안내 책자를 발견한 순간, '바로 이거다!' 싶었습니다. 또한 일본 관공서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점은 좀처럼 쉽게 경험해보지 못하는 일이기에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케세라세라! 원하는 대로 JET 프로그램에 합격하여 일본에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2. 한국과 가장 가까운 국경의 섬, 쓰시마

한반도와 규슈 사이에 위치한 국경의 섬, 쓰시마. 우리에겐 대마도라는 친숙한 지명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쓰시마는 부산에서 불과 49.5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일본 땅입니다. 날이 좋을 땐 육안으로 부산 시가지가 보이고, 어떨 때는 핸드폰에 우리나라 통신사가 잡히기도 한답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만큼 쓰시마는 예부터 한국과 오랜 교류를 해왔습니다. 특히, 한일 평화의 상징, '조선통신사'가 파견되었던 약 200 여 년간, 쓰시마는 통신사의 일본 내 여정을 책임진 '총괄 연출자'로 조선과의 '외교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조선과의 외교 최전방에서 활약하며, 조선과의 교역이 당시 쓰시마 섬의 흥망성쇠와 직결되었던 만큼,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에 부임했다는 사실은 제가 쓰시마시 국제교류원으로서 큰 자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쓰시마의 영산 시라타케

쓰시마의 해안선을 360 도 조망할 수 있는 에보시타케 전망대

조선통신사는 현재 쓰시마시 문화교류사업의 핵심으로, 매년 8 월 첫째 주 토·일요일에 열리는 쓰시마 이즈하라항 축제에서는 무려 400 여 명에 이르는 한일 양국 시민들의 참여 하에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행사가 행해집니다. 축제 기간 동안 국서교환식 진행, 조선통신사 관련 유적지 안내, 환영 만찬회 진행, VIP 수행 통역 등을 맡게 되는데 이때만큼 제 어깨에 짊어지는 책임은 1 년을 통틀어 가장 막중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하지만 행사를 무사히 끝내고 난 뒤의 성취감과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2019 년 한일관계 악화로 한일 각지의 교류사업들이 잇달아 취소되는 상황에서도, 쓰시마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행사는 무사히 성사된 바 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어려운 상황에서 진행되었던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더 특별했고, 다시 한번 조선통신사의 의의와 문화교류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런 뜻깊은 행보에 미약하지만 제가 힘을 보탤 수 있어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어 강좌 및 한국요리교실 개최, 유치원과 학교 방문 강좌, 자매도시인 부산 영도구와의 행정교류 세미나, 한일 해안청소사업 등의 통번역 업무도 담당하였습니다. 특히, 한국어 강좌는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저에겐 업무를 떠나 무척 즐거운 시간이었답니다. 나이가 적게는 초등학생부터 많게는 90 세 최고령의 수강생분까지 연령층이 다양하였는데, 특히 중장년층 분들이 많이 걸음 해주셨습니다.한국에 대한 관심과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정 하나로, 거동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석하시던 모습은, 이분들의 소중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매 수업 매 시간 열심히 임하도록 저를 채찍질하였고, 수강생분들로부터 얻는 에너지는 저의 제트 생활의 큰 활력소가 되었답니다.

학교 방문 강좌

한국요리교실 개최

쓰시마는 다른 지역에 비해, 화려한 볼거리도, 즐길만한 오락·문화시설도 부족하여, 조금은 따분하고 무료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본토가 아닌 변방에 보내진 것에 실망감을 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도 있듯이, 낚시, 등산, 씨카약 등 쓰시마의 자연을 만끽하면서 비로소 새로운 매력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바닷가를 따라 바람을 가로지르며 달리는 재미에 흠뻑 젖어 러닝이라는 새로운 취미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곤란한 일이 생길 때마다 흔쾌히 발 벗고 나서 주시던 직장 동료분들과 먼저 친근하게 다가와 장난 걸어주시던 유쾌하신 직장 상사분들, 아무리 일본어가 능통하다 해도 외국은 외국이라며 기꺼이 쓰시마의 아빠 엄마가 되어주시겠다며 따뜻한 손길을 건네주시던 수강생분들과 옆집 이웃분들. 4 년 동안 많은 분들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새로운 경험에 눈뜨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나날들이었습니다.

3. 새로운 꿈을 향한 디딤돌로써

학부 때, 만약을 위해서 교직이수를 하였지만, 전국적으로 일본어 교사에 대한 수요가 낮은 터라 교사라는 길에 선뜻 용기도, 확신도 서지 않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때 당시는 국제교류원이란 일이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기에 마음이 가는 대로 JET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쓰시마에서 다양한 주제의 업무를 맡으며 내가 진정으로 잘하는 게 무엇인지, 어떤 일이 적성에 맞는지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 방문과 한국어 강좌 등을 통해 내가 알고 있는 정보, 지식들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법들을 터득하면서 역시 통번역 쪽보다는 언어를 가르치는 일이 적성에 더 맞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위로부터 가르치는 일에 재능이 있다며, 이해가 쏙쏙 된다며 아낌없는 격려와 칭찬을 받기도 했답니다. 이제는 JET 경험을 발판 삼아 일본어 교사라는 새로운 꿈을 향해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4. JET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퇴직을 얼마 앞둔 어느 날, 한 수강생분께서 제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제 시야를 한국으로 틀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보다 더 감사하고 뿌듯한 말이 어디 있을까요. 어떤 거창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도, 한국인 국제교류원 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때때론 누군가에게 한국에 대한 관심을 끄는 촉매제로 작용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국제교류원의 역할은 정원사의 역할과도 같았던 것 같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마르지 않도록 물을 주고, 싹이 트면 잘 자라도록 세심하게 돌보는 그런 정원사처럼 말이지요. "제 시야를 한국으로 틀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는 제가 4 년 동안 쓰시마에서 해왔던 노력들이 헛되지는 않았구나 라는 안도와 국제교류원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제 인생의 20 대 페이지 끝자락을 다채롭게 채워준 쓰시마에서의 값진 경험과 소중한 인연들은 저의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물론 4 년 동안 항상 즐겁고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내 일본어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때때론 좌절을 맛보기도 하고, 뜻하던 바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좋았던 기억, 좋지 않았던 기억 모두 다 의미 있었고 저를 더욱 단단하게 성장시켜줄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국제교류원 하고 싶으세요? 그런데 선뜻 용기가 나지 않거나 망설이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냥 마음이 시키는 대로, 도전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불안과 걱정들이 모두 무색해질 만큼 찬란하게 빛나는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케세라세라,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길 응원하겠습니다!

쓰시마의 생활

한국어 강좌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KJET 26 기 국제교류원
이유미 (에히메현청, 2018 년 ~ 2021 년)

1. JET 프로그램에 참가한 이유

일본에서 워킹홀리데이로 일하면서 일본 지방에 대한 매력을 알게 되었고, 귀농에도 관심이 많아서 일본의 지방이 살아가는 모습을 실제로 경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또한, 다양하게 배우고 있던 한국 문화를 알리면서 직접 일본 주민들과 교류를 하고 싶어 JET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2. 에히메현청 한국 국제교류원

에히메현청 한국 국제교류원은 에히메현청과 에히메현 국제교류협회 두 곳에서 일합니다. 에히메현청에서는 주로 통번역 일과 '마쓰야마 – 인천' 직항편인 제주항공 관련 일, 인바운드(한-일) 관광 일을 맡았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한국 출장이 많았는데, 주로 제주항공 본사 방문과 한국 여행사 방문 출장에 통역 겸 수행으로 참여했었습니다.

현청 일 중에서는 인바운드 관광 업무를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 여행사 분들과 연락하며 일할 수 있었고, 인바운드 활성화를 위해서 기획하고 새로운 일을 제시하며 일할 수 있었습니다. 에히메현 국제교류협회에서는 한국 문화를 알리는 강좌가 주 업무이며, 한국어 강좌는 없었으나 대신 한국어 회화 강좌를 만들어 주민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가졌습니다.

국제교류협회 문화강좌

하나투어 여행박람회 참가

3. 3 년간의 에히메현 생활

에히메현에서 생활하며 가장 좋았던 점은 지방의 여유로움이었습니다. 현청 소재지인 마쓰야마시는 콤팩트한 도시로 자전거만 있으면 시내를 돌아다니는 데 문제가 없었고, 아기자기한 카페나 가게들도 많아서 생활과 관광이 잘 어우러져 있는 지방 도시였습니다. 매일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며, 높고 맑은 하늘과 아름다운 노을을 볼 수 있는 삶은 워라밸을 추구하기에 알맞은 곳이었습니다.

또한, 에히메현은 귤 산지로서 유명한데, 매년 일본 감귤 전국 생산량 1 위를 기록하는 등 자칭 타칭 귤 왕국이기도 합니다. 겨울이 되면 슈퍼에는 수많은 종류의 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에히메에 살면서 다양한 귤을 맛볼 수 있고 알게 되었으며, 귤 따기 자원봉사에도 참여해 직접 귤을 수확해 보기도 했습니다. 도시라면 접하지 못했을 지역의 특산물과 특징을 가장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귤 산지로 유명한 야와타하마(八幡浜)

레몬처럼 보이지만 노란 귤

에히메현은 사이클링으로도 유명한데, 자전거를 못 타던 제게 사이클링의 매력을 알게 해 줬습니다. 바다 위의 대교를 달리는 사이클링 대회가 열리는데, 에히메현 국제교류원이 아니었으면 이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자전거를 타는 기쁨을 몰랐을 거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은 분도 많지만 의외로 한국에 대해 전혀 모르는 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저를 통해 한국에 대해 처음 접해보는 사람들에게는 큰 무게감도 느꼈으며, 한국은 이렇다고 단정 짓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외에도 국제교류원이란 직책 덕분에 국적 불문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만남이 가능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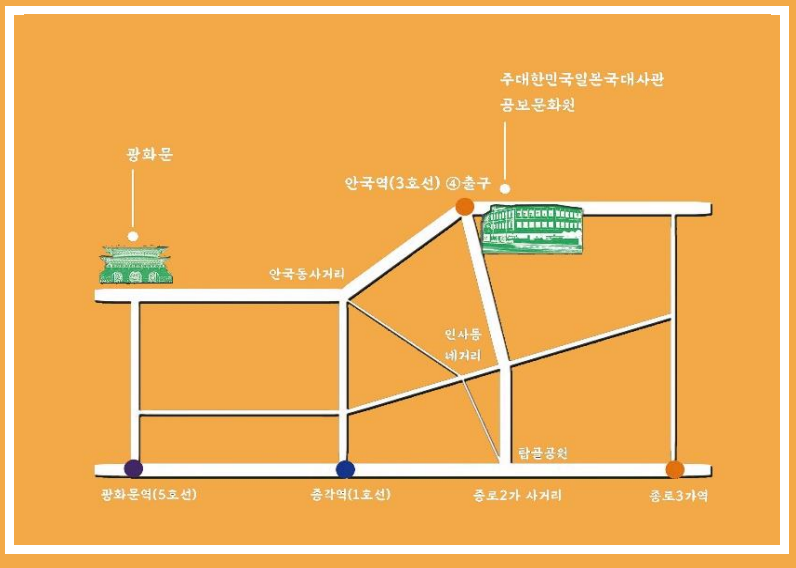
4. JET 프로그램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일본 지자체에서 일하며 다양한 많은 사람을 만나고 교류를 하며,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국제교류원이란 직업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다만, 왜 꼭 JET 프로그램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방의 불편함을 안고 살 수 있는지, 공무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지, 임기가 끝난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제약도 있는 직업입니다. 다양한 선택지 가운데 JET 프로그램을 하나의 후보로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JET 프로그램이어야 하는 분들은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어 전공도 아니었고, 통번역 경험이 없는 저도 이렇게 에히메현에서 3 년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방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지 직접 두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었고, 정시 출퇴근이 가능한 삶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소중한 인연을 만들었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이라 알려진 도고온천을 매일 볼 수 있는 에히메 생활

벚꽃이 피면 더 아름다운 마쓰야마 성을 산책 겸 운동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에히메 생활



※ 여기에 실린 글과 이미지는 무단으로 전재, 편집, 재배포 등을 절대 금지합니다.